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6>

### “누가 도를 모르리오”

#### 제자 탄허에게 보낸 답서 (1)

보내온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죽히도(道)에 향하는 정성스러움을 알겠노라. 나이가 젊고 기운이 넘쳐서 일을 함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를 때에 능히 장부의 뜻을 세우지 못한 도를 배우고자 하니, 속세(俗世)에 심은 선근(善根)이 깊지 않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으리오. 찬탄하고 찬탄하노라.

그러나 도(道)는 본래 천진(天真)하고 정해진 장소가 없는 것이니, 실로 따로 배울 게 없네. 만일 도를 배운다는 생각이 있다면 문득 도를 모르게 되는 것이니, 다만 그 사람의 한 생각이 진실함에 달려 있을 뿐이다. 또한 누가 도를 모르리오마는, 알고도 실천을 하지 않으므로 도에서 스스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네.

예전에 시인 백락천(白樂天)이 조과선사(鳥禪師)에게 도(道)에 대하여 물었다니, 조과선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하였다네. 그러자 백락천이 말하기를, “그런 말은 세 살 먹은 아이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라고 하였다네. 조과선사가 말하기를, “세 살 먹은 아이라도 비록 말을 할 수 있지만, 팔십 먹은 노인이라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고 하였으니, 이 말은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으나 그가 운데 심오한 도리가 있네. 심오한 도리는 원래 별 것 아닌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네. 굳이 시끄러움을 피하여 고요한 것을 구하거나 속됨을 버리고 참됨을 구할 필요가 없네. 항상 시끄러운 데서 고요함을 구하고 속됨 속에서 참됨을 찾아서, 구하고 찾음이 없는 데 이르르면, 시끄러운 것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며, 고요한 것이 고요한 것이 아니며, 속됨이 속됨이 아니며, 참됨이 참됨이 아닌 것이네.

폭지(爆地), 졸지(猝地)에 일체 생각이 다 끊어질 것이니, 이러한 시절을 무어라고 말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한 사람이 허(虛)를 전함에 만 사람이 실(實)을 전하는 도리(一人傳虛 萬人傳實)라는 것이네. 그러나 간절히 바라노니, 잘못 알지는 말게나. 한 번 웃노라.

한암

이 편지는 한암선사가 제자 탄허스님에게 보낸 답서이다. 탄허스님 나이 20세 때 이 때는 탄허스님이 아직 입산하기 2년 전이다. 다시 말하면 탄허스님은 입산하기 2년 전부터 한암선사와 서신을 통하여 문법(問法)했던 것이다. 2년간 약 30통 가량 왕래했다고 하나 남아 있는 것은 두 편에 불과하다. 이 편지는 그 가운데 첫 편지이다.



윤창희(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한암스님은 무상도(無上道, 佛法)를 배우고자 하는 탄허스님의 기개를 칭찬한 다음, 도(道)는 고상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으므로, 시끄럽다고 조용한 곳을 찾거나, 속(俗)을 버리고 진(眞)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진속(眞俗)이 둘이 아니라는 것(眞俗不二)이다. 그러므로 시끄러운데서 고요함을 찾고 속(俗) 속에서 진(眞)을 찾아서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면 그때가 진정으로 진망(眞妄)을 떠난 참된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불법의 진리는 고상한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세속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므로 입산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도 들어 있다. 또 깨달음이란 졸지, 폭지 즉 한 순간에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 탄허스님 입산 전 문법(問法)서신

2년 동안 30통 주고받았

2통만 전해져, 그중 첫 편지

원본 없고 탄허스님 외위 전한 것

불법 배우고자 한 탄허 칭찬

“도는 일상 속에 있는 것,

세속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

일인전허 만인전실(一人傳虛 萬人傳實)이란 원래 불법이란 공(空)으로서 아무 것도 없는 것(虛)인데, 한 사람(부처님)이 있다고 전한 결과 만인이 그것을 실(實)로 전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불법(佛法)의 위대성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다. 금강경에 “無有定法 名아욕다라삼삼보리”라는 말처럼 있다고 한다면 관념의 집착이 된다.

이 편지는 원본이 남아 있지 않다. 제자 탄허스님이 외우고 있다가 화엄경 특강 때 알려 준 것이다. 또 이 편지는 언제 보낸 것인지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런데 탄허스님 법어집인 <망산굴법어> 연보 1932년에 보면 “이 해 음력 8월 14일에 처음으로 방한암스님에게 서신을 보내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한암선사의 이 답장은 1932년 9월경 보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 “재산은 후손에게 물려 주는 것 아닌 세상에 되돌려 주는 거죠”

## 주필거미박물관 김주필 관장 (前 동국대 교수)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저도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 생애 모은 재산이라면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어요. 어느날 자식들한테 선연을 했죠. 공부하는 마음대로 시켜줄 수 있지만 유산은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재산은 세상과 나눌 거라고 말이지요. 이 생애에서 누리는 것이 온전히 제 것인데 없잖아요. 세상에서 받은 거지. 그러니 당연히 불자로서 나누는 것이 큰 행복이죠.”

김주필 주필거미박물관장(前동국대 교수)은 나누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누구나 나누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김 관장은 2009년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박물관과 수석전시관 도서관 동물사육실 등 부속시설을 모두 동국대 기증을 확정했다. 거미 표본과 관련한 화석 곤충 표본 광석 등 25만여점과 부동산과 건물 전시물을 합치면 그 가치는 200억원에 달한다.

#### 받은 만큼 세상에 돌려주고자

그가 이렇게 큰 재산을 회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세상에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제가 장학금 수혜자예요.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두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도 돈 벌면 꼭 제가 받은 걸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기금이 모아지면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청소년 시절, 가정형편 때문에 아버지가 교사로 재직하던 농고에 들어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서울로 기출, 1년을 방황하다 배재고에 입학했다. 이후 서울대 동물학과에 들어가면서 삼성 하이테크 회장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다.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6~7천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학기당 장학금이 3만 8천원 나왔어요. 그 돈이면 책 사고 생활비로도 쓸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죠. 나는 한번도 그 돈을 직접 쓴 적은 없지만 평생 그 돈을 잊지 못합니다. 나를 대학에 다니게 해준 분이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준 분이죠.”

이렇게 장학금으로 공부한 김 관장은 앞으로 장학기금을 모아 동국대 우수학생 10명을 선정 학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5천만원 정도 기금이 모여 있어요. 목표 금액인 5억이 모아지면 전액 장학생은 물론 한국의

#### 장학금 수혜자로 학업 마치고

20대 시절 백양사에서 고시공부 중

조실스님의 조언으로 진로 변경

외교관 꿈 접고 학원 강사로

40대에 동국대 입학

100여국 다니며 30만 마리

거미 채집하며 박사학위 취득

2004년 남양주에 거미박물관 설립

박물관과 전시관 거미 표본 등

200억원 재산 동국대에 기증

“거미박물관 기반으로 기초과학

학습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꿈”

생물학도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싶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단 한명이라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교수의 나누는 마음은 지난 2010년 거미박물관 내



주필거미박물관은 거미 표본과 거미사육실 화석 등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 온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설명해주는 김주필 관장

에 오픈한 연미술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연미술관은 신인작가들이 작품을 무료로 전시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장소다. “신인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싶어도 그만큼 여유가 없잖아요. 이곳에서 마음껏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3억원을 들여 조성한 연미술관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어느날 술을 먹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다가와 ‘선생님’ 하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조각 하던 친구였는데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는 인사차 아직도 미술하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친구를 돕기로 마음 먹었어요. 재료를 대주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작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이지요.”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고 상금으로 프랑스 파리 유학 기회를 제공 받았다. 하지만 학생은 비행기표값이 없어 망설였다. 김 관장은 학생이 감사의 뜻으로 그에게 전한 작품을 되돌려 주었다.

“그 친구가 상을 받으니까 작품 값이 열배가 뛰었어요. 그러나 그거 팔아서 비행기표 사고 생활비도 쓸 수 있을 만큼 돈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작품을 팔아 그 돈으로 유학을 갔고 이제는 한 대학의 어엿한 교수가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김 관장은 가난한 예술가들이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작품 활동을 접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박물관 내에 무료공간을 만들었고 자신의 소장품도 미술관에 기증, 나눔 공간을 만들었다.

#### 인생의 갈림길에서 만난 불교

김 관장은 매일 아침 일어나 30분 정도 좌선하며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시절 미션스쿨을 다니며 자연히 기독교 신자가 되었던 그가 불자가 되는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제가 서울대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외교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의무고시에 합격해서 해외로 나가고 싶었어요. 1960년대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 보였거든요. 암울했어요. 그냥 무작정 도망만 가고 싶었죠.”

그렇게 의무고시 공부를 하러 찾아가던 곳이 다름 아닌 백양사였다. “3개월쯤 공부 하고 있는데 조실스님께서



석좌교수 임명 당시, 오영교 前동국대 총장과 함께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값 15,000원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한민·한중·단군 이야기)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역사와 뿌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도사가 쓴 대한민국의 고대 7,000여 년 역사이야기  
값 15,000원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고,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웹진 인비록 http://www.dbblog.co.kr  
값 15,000원

도서구입문의 : 전화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환)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블광문고/홍문당/보문교/중앙출판/세원출판/치용서림  
경주불교/영광도서/세기서림/홍지서림/탐라도서 등 전국전 판매중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궁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사업·소원·결혼·매매·대인·실물·가솔인·출산·소송·여행·취직·시험·이사·질병·지능(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책” 궁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봉서사  
주지 직인(改印) 공고**

한국불교태고종 봉서사 주지 직인을 다음과 같이 개인합니다.

1. 한국불교태고종 봉서사 주지 새직인

2. 직인 개인 일자 : 2014년 5월 1일

3. 직인 개인일 이후로부터 과거 한국불교태고종 봉서사 주지 직인은 무효임을 알립니다.

2014년 5월 1일

**한국불교태고종 봉서사 주지 도산**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옹골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